

##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研究

崔鎮英\*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博士課程\*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Design of Madeleine Vionnet

Choi, Jin-Young\* · Cho, Kyu-Hwa

Doc.,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Madeleine Vionnet(1876~1975, France),the most prominent figure of the 20th century draping, started her apprentice in France in 1888 and expressed femininity of adult products through her various works until she closed the house in 1940. The feminine designs of the adult style appeared in 1930s, whose characteristics were silhouette and details that emphasize the body, and bias designs. Not only Vionnet, but also Chanel and Schiaparelli were the representative female designers at that time.

The preliminary researches of Vionnet designs were mostly focused on her cutting method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Vionnet's bias cutting method, to compare Vionnet with female designers of Chanel and Schiaparelli who led the mode of 1930s with feminine designs for the adult products in that period, and then to attempt creative designs by use of bias cutting.

**Key Words** : Madeleine Vionnet(마들렌 비오네), bias cutting(바이어스 커팅), draping(드레이핑)  
Gabrielle Chanel(가브리엘 샤넬), Elsa Schiaparelli(엘자 스키아파렐리)

### 1. 서론

20세기에 있어서 드레이핑의 최고봉인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6~1975, 프)는 1888년 파리에서 도제 생활을 시작하여 1940년 하우스 폐업을 할 때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성인풍의 여성스러움을 의상에 잘 표현하였다. 특히 성인풍의 여성스러운 디자인은 1930년대에 등장하였으며, 신체를 강조

한 실루엣과 디테일, 바이어스 디자인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당시 대표적인 여성 디자이너로는 비오네를 비롯하여 샤넬, 스키아파렐리를 들 수 있다.

비오네 디자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sup>1)</sup>에서는 대부분이 재단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패션이 장식적인 디테일과 드레이프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의 변화와

드레이프의 표현효과는 복식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현재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방법<sup>2)</sup>을 고찰하고, 동 시대 성인풍의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30년대 모드를 이끌어 나갔던 대표 여성디자이너인 비오네, 샤넬,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며,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창작디자인을 시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1930년대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문화적, 복식사적 배경과 비오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30년대의 작품<sup>3)</sup>을 주로 살펴보고, 당시 대표적인 여성 디자이너인 비오네, 샤넬,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 특성 비교도 같은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 II.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

### 1. 사회·문화적 배경

비오네가 활약했던 1930년대는 1929년 대공황과 뒤이은 경기 침체로 1920년대의 호황기는 사라지고 경제적 불황은 더욱 가속화되어 활발했던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막아 이전과 같이 가사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불안한 사회현상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예술사조인 초현실주의를 형성하였으며,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dadaism)을 모태로 탄생하였다. 이것은 20세기에 나타난 모든 미술운동 가운데 절대적인 자유에 대한 소망에 가장 깊이 관련 되었고,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자동기술법과 위치전환법이 대표적 기법이며, 여기에 심리학적 요소인 성, 꿈, 무의식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표 작가들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르네 마그리트(Renè Magritte, 1893-1967),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등을 들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 양식은 패션, 광고,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중적

오락이었던 영화는 대중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영화는 대공황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관객들의 도피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마들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 캐서린 헵번(Katharine Hepburn),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등 화려한 영화배우가 우상시되었다.

당시 『보그』나 『하퍼즈 바자』 등의 일류 잡지는 상류 계층용에서 일반 계층용으로 성격을 바꾸어 모드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 매 시즌 새로운 파리 컬렉션의 경향은 라디오로 보도되게 되어 모드의 보도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 2. 복식사적 배경

비오네가 활약했던 1930년대 여성들의 복장은 1920년대 낮은 허리선에서 원래의 허리선으로 돌아가고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면서 여성다움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여성의 자연스러운 신체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성인다운 감각을 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선이 드러나는 날씬한 slim & long인 ‘성인풍의 여성적인 모드’<sup>4)</sup>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의상을 위해서 부드러운 원단의 사용은 새로운 유행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벨벳(velvet), 새틴(satin),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 툴(tulle)과 조렛(georgette)등과 같은 직물이 애용되었다.<sup>5)</sup> 이러한 직물들은 착용자의 신체 위에서 부드럽게 늘어뜨려져 착용자의 신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바이어스 드레스는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으로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sup>6)</sup>

1925년의 오트 쿠튀르의 대외 수출액은 프랑스 수출 총액의 2번째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1935년에는 27번째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쿠튀르의 메종은 20년대에 팽창한 종업원의 수를 대폭 삭감해야 했고, 섬유, 의복 메이커에서부터 액세서리, 장식 끈, 자수, 단추업체까지를 포함한 전 모드 관련업계의 정체가 시작되었으며, 1935년에는 전 업계에서 1만명의 실업자가 나왔다. 샤넬이나 몰리뇌와 같이 20년대 후반의 호경기 중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메종조차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사

벨의 메종은 드레스의 값을 반액으로 인하하였고, 비오네의 메종 또한 38년도 드레스 제작이 1928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광욕이 대중에게 일반화 되면서 비치 웨어(beach wear)나 수영복 패션이 잡지에 자주 소개되었고, 햇빛에 몸을 태우는 것이 남다른 사치를 즐기는 방법이었다. 수영복은 20년대 말 부터 피부에 꼭 붙는 저지를 사용하였고, 해변에서 두르는 비치 랩과 펄럭이는 차양이 달린 모자, 캔버스지로 만든 커다란 원통형 잡낭(duffle-bag)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시대의 모던한 비치 드레스의 유행은 그 후 캐주얼 웨어로 변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스키아파렐리의 손으로 짠 니트 수 영복은 앙티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청단 패션을 자랑하는 리베에라 휴양지에도 출현하여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당시 초현실주의 양식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화가들과 디자이너들의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디자이너들은 당시 화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 양식을 패션에 도입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스키아파렐리를 들 수 있다.

### III.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 양식

1929년 발표한 바이어스 커팅(bias cutting)을 이용한 이브닝드레스는 종래의 드레스가 무시했던 여

성의 부드러운 실루엣을 잘 표현해 주었으며, 드레이프(drape)의 정수를 보여주었다.<sup>7)</sup> 이러한 바이어스 재단은 19세기 동안 플라운스(flounce), 가장자리 처리(edgings), 플리츠(pleats)와 같은 장식에 주로 쓰였다. 그러나 비오네는 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발견하여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바이어스 재단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sup>8)</sup> 이에 비오네는 드레이프의 정수와 단순미를 살린 여성스러운 의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단을 사각형, 사분원, 삼각형을 이용하여 조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피팅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본장에서는 1888년 도제생활을 시작해 비오네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30년대 작품을 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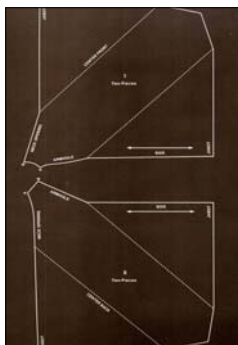
#### 1. 사각형을 이용한 재단

사각형을 이용한 재단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30년대까지 비오네가 많이 의존한 구성법으로 그리스 복식과 기모노의 평면적인 의상에서 영향을 받아 다투와 봉합선을 최소화한 원통형대의 천으로 여유 있게 몸을 감싸도록 재단하는 방법<sup>9)</sup>이다.

1919-20년대 발표한 행커치프 드레스<그림 1, 2>는 60인치 넓은 폭으로 된 oyster-white crepe romain을 바이어스로 재단하였다. 4개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각 꼭지점을 모아 어깨선을 만들었고, 대치되는 꼭지점을 치마단으로 떨어뜨려서 행커치프 포인트(handkechief



<그림 1> 행커치프 드레스(1919-20), 「Madeleine Vionnet」



<그림 2> 행커치프 드레스 패턴(1919-20), 「Madeleine Vionnet」



<그림 3> 튜블러 드레스 (1921), 「Madeleine Vionnet」



<그림 4> 역동성을 강조한 드레스 (1923), 「Madeleine Vionnet」

point)가 형성되어졌고, 이로써 그리스와 중세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드레스는 여밈이나 트임이 없이 머리위로 입을 수 있고, 바이어스 재단이므로 인체에 자연스럽게 드리워진다.<sup>10)</sup>

1921년에 발표한 튜블러 드레스<그림 3>는 재봉할 때 드레스의 각 부분을 튜브로 만들었고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카울 네크라인과 네 개의 자보를 형성했다. 목선과 어깨를 제외한 전체는 식재대로 봉재되고 봉재된 솔기를 신체 둘레로 나선형의 바이어스로 둘러 입었다. 새시(sash)는 솔기중의 트임을 지나 허리선을 고정하며 자보의 아름다움을 살려 주었다. 그녀는 튜블러형의 드레스를 통하여 여성 고유의 신체미를 표현하기 위해 동양풍의 사각형 패턴과 겹침의 요소를 도입했다. 사각형의 재단방법을 사용한 드레스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입음으로서 봉재의 용이함과 사선 솔기의 동적이미지 및 여성 신체미를 동시에 구현했다.<sup>11)</sup>

1923년에 발표한 역동성을 강조한 드레스<그림 4,5>는 사각형의 변형으로 나선형의 접힌 선과 프린징 장식이 가장자리에 있고 지그재그 모양의 허리선들로 움직임 표현한 드레스이다. 네크라인과 스커트는 바이어스 재단이고, 6개의 접혀진 사각형들로 재봉된 스커트 허리선의 솔기는 지그재그 형이다. 그러면서 어깨와 헴 라인의 프린징 장식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sup>12)</sup>

그녀의 후기 작품 중 사각형을 응용해 만든 단순한

형태의 스카프인 뫼비우스(Möbius)띠는 긴 직사각형의 한 끝을 끈 뒤 그것을 다른 쪽과 연결시켜 안팎이 없는 한 면의 루프를 만들었다. 이 스카프의 착용은 우선 목에 두르고 오른쪽 팔을 오른쪽 루프에 넣고 왼쪽 루프를 오른손으로 잡아야 했다. 그런 뒤에 같은 방식으로 왼손을 왼 쪽 루프에 넣고 오른쪽 루프의 가장자리를 잡은 뒤 이를 교차하여 팔을 풀면 루프의 꼬임이 풀어지면서 매듭을 형성하였다<그림 6>.<sup>13)</sup> 1930년대 중반 뫼비우스 밴드를 이용한 뫼비우스 밴드 드레스<그림 7>는 긴 새시들을 어깨 위로 끌어 올려서 상반신의 옆면에서 허리까지 감싸고 있다.

## 2. 사분원을 이용한 재단

원을 4등분해 하나를 이용한 재단은 패턴 메이킹의 전통적인 분야로 입체적인 조형 효과를 만들었다. 1930년대 비오네는 이러한 도련을 많이 선보여 작업하였는데, 바이어스 재단을 하면서 겪는 문제는 바이어스로 재단된 원단 자체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으로 바이어스 의복들이 인체에 따라 고정되어지고 변화와 중력으로 인해 생기는 변형이었다. 비오네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씨실과 날실을 손바느질로 모눈이 있는 판을 따라 표시하여 원단을 사분모로 잘라서 접은 후에 꼭지점과 양 가장자리를 벽에 핀으로 꽂은 뒤 끝을 따라 추를 달아서 늘어나도록 둔 뒤에 변형이 끝나면 옷을 만들었다.<sup>14)</sup>



<그림 5> 역동성을 강조한 드레스 패턴 (1923), 「Madeleine Vionnet」



<그림 6> 뫼비우스 밴드 스카프, 「Madeleine Vionnet」



<그림 7> 뫼비우스 밴드를 이용한 드레스 1930년대, 「Madeleine Vionnet」



<그림 8> 데코르테 드레스(1932), 「Madeleine Vionnet」

1932년에 발표한 데코르테 드레스<그림 8>는 바이어스와 식서의 솔기들이 같이 연결 될 수 없었던 전통의 법칙을 깨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 드레스에서 비오네가 선호했던 목선이 높고 어깨를 깊이 파내었던 비오네 데코르테(Vionnet décolleté)가 선보였다. 이 드레스의 아름다움은 물결치는 도련의 움직임에 있었고, 이 물결은 바이어스로 재단된 소재들의 움직임과 함께 나타났다. 이처럼 비오네의 목표는 착용자가 움직임으로써 생겨나는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대한 미적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sup>15)</sup>

1935년에 발표한 무가 있는 드레스<그림 9,10>는 하나의 사분원 스커트로 만들어진 후 어깨끈에서 개더하여 바이어스 연장부로 각각의 보디스의 옆선을 덮었다. 뒤쪽 힙의 양 옆선에는 사각형의 무가 있고 어깨끈의 꼬임은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허리의 한 면에 붙은 천에 연결되어서 앞 허리의 또 다른 옆선에 걸쳐 있었다. 이는 많은 주름으로 인해 아름다웠고, 스커트의 많은 여유분은 허리에서 벨트로 눌러주었다.<sup>16)</sup>

비오네가 사분원을 사용해서 이룩했던 배럴 컷(barrel cut)은 다양한 슬리브와 스커트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고, 원형의 재단에서만 이루어 질 수가 있었던 선버스트 플리츠(sunburst pleats)는 아코디언처럼 생겨서 다른 플리츠처럼 납작한 것이 아니라 3차원이었다. 게다가 이 플리츠는 꼭지점 부분에서는 알고 사분원의 큰 부분에 가면 깊어졌다. 1937

년에 발표한 골드와 실버의 스팅글이 달린 라메로 만든 플리츠 드레스<그림 11>는 카르티에의 목걸이로 고정되었으며 길이가 길었다.<sup>17)</sup>

### 3. 삼각형을 이용한 재단

삼각형을 이용한 재단은 다트나 절개선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삼각형의 기하학 형태의 무(gusset)나 고데(godet)<sup>18)</sup>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해부학적 컷(anatomical cut)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중세 갑옷 밑에 입었던 실용적인 옷에서 영감을 받아 움직임에 편안함을 주도록 한 것으로 비오네의 해부학적 패턴의 보디스는 주로 중세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29년에 발표한 양옆에 무가 있는 드레스<그림 12>에서 허리선의 위아래로 옆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두 개의 다이아몬드형의 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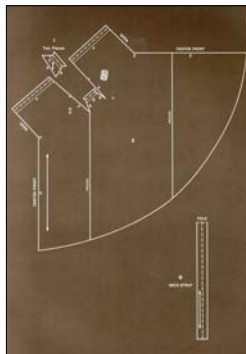
1932년에 발표한 카울 네크라인 블라우스<그림 13>에서 비오네는 뒤집어진 삼각형의 삼입을 이용하여 카울 네크라인으로 발전시켰고, 이것은 드레이프 되고 늘어진 목선이 만들어져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7년에 발표한 중세풍 드레스<그림 14,15>는 도련에서부터 위쪽의 힙 둘레까지 8개의 절개들이 삼입되어진 삼각형 고데의 간단한 사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오네의 사각형, 사분원, 삼각형을 이용한 재단방법은 의상을 조각적으로 표현하여 바이어스 재단의 극치를 이루었고, 샤넬과 스키아파렐리와 함께 당시 모드를 이끌어나갔다.



<그림 9> 무가 있는 드레스 (1935), 「Madeleine Vionnet」



<그림 10> 무가 있는 드레스 패턴(1935), 「Madeleine Vionnet」



<그림 11> 플리츠 드레스(1937), 「Madeleine Vio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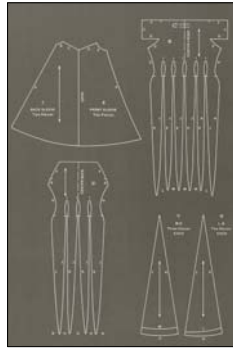
<그림 12> 양옆에 무가 있는 드레스(1929), 「Madeleine Vionnet」



〈그림 13〉 카울  
네크라인 블라우스  
(1932),  
「Madeleine Vionnet」



〈그림 14〉 중세풍  
드레스(1937),  
「Madeleine Vionnet」



〈그림 15〉 중세풍  
드레스 패턴(1937),  
「Madeleine Vionnet」



〈그림 16〉 로맨틱한  
의상을 입고 있는  
샤넬(1930년대),  
「Jewelry by Chanel」

#### IV. 비오네, 샤넬,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 특성 비교

비오네의 작품은 바이어스 재단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30년대 그 특성을 연구 할 때는 동시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활동했던 샤넬, 스키아파렐리와 함께 그 디자인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샤넬, 스키아파렐리는 비오네와 함께 성인품의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표해 30년대 모드를 이끌어갔다. 본 장에서는 디자이너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1. 가브리엘 샤넬의 기능주의적 디자인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은 기능주의 모더니스트로 20년대 가르송 스타일에서 벗어나 30년대가 시작되면서 성인품의 여성적 실루엣의 로맨틱한 의상으로 변화하였다(그림 16). 그러나 로맨틱한 의상과 함께 자신의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계속되고 있다.

샤넬의 기능주의적 성향은 그녀가 저지(jersey)직물을 즐겨 사용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속옷의 재료로 쓰였던 신축성 있는 울 저지(wool jersey)를 여성복에 최초로 사용하여 활동에 자유를 주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다.<sup>19)</sup> 당시 쿼터링의 정규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저지는 남성 노동자의 속옷 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

던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나 다트나 여유분을 주지 않아도 인체에 자연스럽게 입혀지고 활동과 움직임을 편하게 하여 당시 여성의 기능적인 의상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직물이었다<sup>20)</sup>(그림 17).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그림 18)는 가르송에 의해서 표현된 것으로 당시 대량 생산 되고 있던 포드 자동차와 비교되면서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순수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전체적으로 슬림한 직사각형의 라인을 보이며 어깨 양쪽 방향과 허리둘레 그리고 양쪽 다리로 퍼져 허리 중앙에서 네 개의 점으로 집중되는 정교한 핀턱으로 직선적인 장식을 보여주었다.<sup>21)</sup> 이것은 그녀가 디자인한 의복 중에서 매우 기능적인 의상으로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샤넬 슈트(Chanel suit)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실제로 사용 목적을 위한 기능미에 중점을 두었다.<sup>22)</sup> 그녀의 스타일이기도 한 샤넬 슈트의 기능성은 그녀의 완벽한 재단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샤넬 스타일은 표면에 드러나는 독창적인 실루엣과 개성 있는 디테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통해서 훌륭한 착용감을 산출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엘레강스를 창출하였다. 샤넬 슈트의 비밀은 팔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설적으로 암홀은 좁고 꼭 맞게 재단한 데에 있는데, 이것은 움직임이 편하여 입고 생활하여도 편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요소가 첨가된 것이다. 샤넬 슈트의

소매가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샤넬이 일할 때 그녀가 언제나 슈트 차림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샤넬 슈트는 모두 겹기에 편하도록 주름을 넣은 무릎까지 오는 직선형 스커트와 사람들이 포켓이 있었으면 하는 자리에 포켓이 달려 있고, 실제로 잠글 수 있는 단추가 있는 박스형 카디건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이러한 샤넬의 기능성 복식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으며, 입어서 편하고 단순하며,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젊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건축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기능주의의 장식 부정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샤넬은 "드레스는 기능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사용을 위해서는 포켓이 있어야 하고 단추 구멍이 없는 단추는 필요 없다. 소매는 팔을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24)</sup>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샤넬의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샤넬 슈트가 오랜 세월 동안 명성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기능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잃지 않아서이다.

샤넬이 추구한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로 표현되었다. 그녀는 '기능은 아름다움'이라는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60년대 초에 두 가지 색으로 펌프스를 디자인하였다. 흑과 베이지로 된 구두는 특히 더럽혀지기 쉬운 부분이 발끝이라는 샤넬의 실질적인 발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피부색과 유사한 베이지의 사용으로 다리는 길어 보이고 발은 작아 보이

는 효과가 있었다. 검은색과의 배합은 그래픽한 디자인성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것이었다. 가죽 끈과 골드 체인의 샤넬 백도 당시 핸드백 밖에 없었던 시대에 양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된 형태로 고안된 것으로, 부드러운 양가죽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매트라세(matelassé)기법이 첨가되었다. 매력적인 매트라세 기법은 샤넬을 상징하는 디테일로서 현재는 신발이나 시계, 귀걸이 등의 보석디자인에도 그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up>25)</sup>. 또 향수 No.5의 단순한 사각형 병에서도 샤넬이 추구한 단순성과 기능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샤넬의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당시 모드를 반영한 것이고, 당시 여성들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의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앞서가는 여성의 미를 적당하게 표현하였다.

## 2. 엘자 스키피렐리의 회화적 표현과 초현실주의

또 하나의 여성디자이너인 스키피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는 강렬한 색상의 사용과 가장 기발하고 혁신적인 작품 성향으로 30년대 패션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녀는 성인풍의 여성적인 실루엣에 초현실주의 양식을 도입시켜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모드계의 초현실주의자로 불렸고, 이것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으로 그녀는 모든 사물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까지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아름답게 창조해 내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그림 17> 울 저지 슈트 (1930-35), 「Cubism and Fashion」



<그림 18> 샤넬이 입은 리틀 블랙 드레스 (1937), 「Jewelry by Chanel」



<그림 19> 실크 이브닝 드레스 (1937), 「Elsa Schiaparelli」



<그림 20> 이브닝 드레스 (1937), 「Elsa Schiaparelli」

리고 스키아파렐리는 비오네와 사뭇처럼 우아함이나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유희적인 표현을 중시하여 디자인하였다.

스키아파렐리의 대부분의 작품은 초현실주의 양식을 따랐고, 이러한 의상은 사실적 초현실주의에 속하며 그녀의 작품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녀는 당시 예술 사조인 초현실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디자인에 적극 활용시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자코메티(Giacomati, 1901~196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3~1967),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장 콕도(Jean Cocteau, 1889~1963)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의상에 도입시키고 예술가들을 패션에 직접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그녀의 복식에 대상이 된 초현실주의 형식은 신체부위, 자연물, 일상용품의 복식으로 이동, 의복 품목간의 위치 변형과 착시, 눈의 시각적 착시<sup>26)</sup>를 표현한 디자인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신체부위는 눈, 입술, 가슴, 사람의 얼굴과 같이 신체 각 부위를 독립적으로 복식에 표현한 기법이다. 1937년에 발표한 드레스<그림 19>는 뒤에 꽃병이면서 사람의 옆모습인 영상을 만들어 이를 응시하는 눈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입술은 실내 장식가인 장 미셸 프랑크(Jean Michel Frank)와 달리가 당시 인기 있던 여배우인 매 웨스트(Mae West)의 입술을 이용해 립 소파(lips sofa)를 제작한 것으로

관능적이면서도 장난스럽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1937년 스키아파렐리의 상점을 위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용<sup>27)</sup>되었다. 자연물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조개, 가재 등이 선호되었다. 이는 마음속 깊이와 바다의 깊이가 동질성을 갖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937년에 발표한 그녀의 진홍색의 바닷가재와 파세리를 수놓은 이브닝드레스<그림 20>는 달리와의 공동 작업으로 그로데스크하고 에로티시즘적인 이미지를 보이며 달리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 바닷가재의 사용은 가재가 역사 이전의 원초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sup>28)</sup>이고,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키아파렐리는 패션계의 초현실주의자답게 꽃, 나비, 매미 등 평범한 주변의 자연물들을 이용하여 단추나 모자, 액세서리 등으로 변용시켜 새로운 디자인으로 조형미를 부여하였다. 일상용품의 복식으로 이동은 옷장의 서랍, 의자, 시계, 악기 등의 일상용품들을 복식에 이동시킨 표현 기법으로 그녀가 1936년 발표한 데스크 슈트(desk suit)<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이 드레스는 달리의 조각 venus de milo with drawers에 표현된 서랍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스키아파렐리는 달리로부터 깊은 영향을 많이 받아 그의 작품을 자신의 의상에 도입시키면서 전통적인 미를 부정하고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였다. 의복 품목간의 위치 변형과 착시는 의복의 앞과 뒤가 바뀌거나 속옷이 겉옷으로 표현된 경



<그림 21> 데스크 슈트 (1936년), 「Fashion and Surrealism」



<그림 22> 백 워드 슈트 (1937-38), 「Fashion and Surrealism」



<그림 23> 트롱프 뤼이유 스웨터(1927), 「Elsa Schiaparelli」



<그림 24> 목재 인형으로 바이어스 재단을 하고 있는 비오네 (1934), 「Madeleine Vionnet」



우로 하나의 이미지가 이중적 기능을 하도록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여 환영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1937~38년에 발표한 백워드 슈트(backward suit)<그림 22>는 재킷의 앞과 뒤가 바뀌어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눈의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트롬프 뢰이유(trompe l'oeil)<sup>29)</sup>가 대표적이다. 1927년 발표한 가슴과 소매에 보우(bow)를 단 검은색과 백색의 스웨터<그림 23>가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와 같이 스키아파렐리는 자신의 성인풍의 여성적인 디자인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모티브를 의상에 도입해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 3. 마들렌 비오네의 드레이핑에 의한 조각적 표현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6~1975)는 신체의

미를 알고 바이어스 재단에 의해서 드레이핑을 조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이너였다. 자연스런 인체 위에 옷감 자체의 풍부한 표현성이 발휘되면서 의상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여겼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미에서 그 표준을 찾아 현대 여성에게 옷감과 인체의 참다운 조화를 제시하였다. 1930년대 비오네의 작품들 대다수가 상체는 꼭 맞고 단순하며 스커트 부분은 바이어스 재단을 통해 드레이프지는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미를 재도입하여 여성의 관능미를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독특하고 천부적인 재능과 기술은 의상디자인 과정에서 대상하는 대신 인체의 4분의 1크기의 목재 마네킹을 제작해 그것에 옷감을 걸치고 그 성질을 연구해서 완성된 드레스의 전체적 효과를 확인한 뒤에 재단한다는 독자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그림 24>.

<표 1> 비오네, 샤넬, 스키아파렐리의 디자인 특성 비교

	비오네(1876~1975년)	샤넬(1883~1971년)	스키아파렐리(1890~1973년)
디자인 특성	·성인풍의 여성적 실루엣 ·드레이핑에 의한 조각적 표현의 디자인	·성인풍의 여성적 실루엣 ·기능주의적 디자인	·성인풍의 여성적 실루엣 ·회화적 표현의 초현실주의적 디자인
활동시기	·1888년(도제생활시작)~1940년(하우스 폐점)	·1909년(모자점 개점)~1955년(하우스 폐점)	·1927년(컬렉션 'Display No.1' 개최)~1954년(하우스 폐점)
소재	·바이어스 결을 중시하여 벨벳, 새틴, 툴, 실크, 레이온 같은 얇은 소재 사용	·저지소재 사용	·로도판, 셀로판, 유리등의 특수한 소재 사용
색상	·주로 무채색 사용	·주로 검정색 사용	·화려한 원색 사용 (쇼킹 핑크)
작품비교	 <p>(1930년) 「Madeleine Vion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레이프</li> <li>·바이어스 재단</li> <li>·무채색</li> </ul>	 <p>(1930~35년) 「Cubism and Fash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지</li> <li>·검정색</li> </ul>	 <p>(1937년) 「Elsa Schiaparell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크</li> <li>·쇼킹핑크</li> <li>·초현실주의에 의한 회화적 표현</li> </ul>
공헌도	·바이어스 커팅기술 발견 ·옷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재단 방법고안(사각형·사분원·삼각형)	·복재의 허용으로 거대한 기성복 시장 형성하는 기초 마련 ·남성노동자의 속옷 이외에는 사용된 적 없는 저지의 사용으로 여성의 인체 해방	·컬렉션에서 테마 설정 ·최초의 지퍼 사용 ·프레타 포르테의 사고 제시 ·전위적인 초현실주의 디자인으로 세퍼레이츠 개념 패션에 도입

그녀는 미지 세계의 탐험과 기존의 전통법칙을 깨는 새로운 커팅 기술을 발견하며, 새로운 모형을 시작한 개척자이다. 그녀는 유행을 주도해 나가지는 않고 변화하는 모드 속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 나갔다. 기능주의라는 예술개념을 따르면서 천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인지하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하나의 구조로 형성하여 의상을 창작하였고, 이로써 과거 인공적으로 인체를 구속하여 의상을 창조하고자 하였던 구시대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며 동시에 그리스와 로마 복식의 우아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식 창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오네는 드레이핑에 의한 조각적 표현, 샤벌은 기능주의적 디자인, 스키타파렐리는 회화적 표현과 초현실주의<sup>30)</sup>로 각기 다른 디자인을 하였고, 비오네, 샤벌, 스키타파렐리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한 <표 1>은 다음과 같다.

돋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며 개성을 가진 젊은 도시 여성들을 위한 이브닝드레스를 제작한다.

- 아이템 : 드레스
- 색채 : 검정색
- 소재 : 실크
- 디자인 포인트 :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바이어스 커팅을 사용한 Romantic Lady I 은 비대칭적인 헴 라인으로 디자인 하여 홀터 네크라인으로 등을 노출시켜 관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성미를 강조하였고, Romantic Lady II 는 넓은 플레어 를 주어 여성스럽고 분위기 있는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수공예적인 장식요소를 위해 장미꽃을 모티브로 장식하였고, 크리스탈, 비즈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 이미지 맵 :



## V.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창작 디자인

### 1. 디자인 및 해설

1) Romantic Lady I . II <그림 25,26,27,28>

- 컨셉트 : 바이어스 커팅을 이용하여 여성적인 실루엣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사교 모임에서 자신을



<그림 25> Romantic Lady I (앞)



<그림 26> Romantic Lady I (뒤)



<그림 27> Romantic Lady II (앞)



<그림 28> Romantic Lady II (뒤)

## VI. 결론

## 참고문헌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30년대는 20년대의 호황기를 지나 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직업여성은 가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30년대 여성들의 복장은 20년대 낮은 허리선에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여성다움이 강조되게 되었고, 여성 신체의 자연적인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성인다운 감각을 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선이 드러나는 날씬한 slim & long인 '성인풍의 여성적인 모드'가 되었다.

비오네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드레이프의 정수와 단순미를 살린 의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단을 사각형, 사분원, 삼각형을 이용하여 조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피팅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비오네의 작품은 바이어스 재단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30년대 그 특성을 연구 할 때는 동시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활동했던 샤넬, 스키아파렐리와 함께 그 디자인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샤넬, 스키아파렐리는 비오네와 함께 성인풍의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다른 디자인으로 발표해 30년대 모드를 이끌었다. 비오네의 드레이핑에 의한 조각적 표현, 샤넬의 기능주의적 디자인, 스키아파렐리의 회화적 표현과 초현실주의로 디자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실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바이어스 커팅을 사용한 Romantic Lady I 의 이미지는 비대칭적인 헴 라인으로 디자인하여 홀터 네크라인으로 등을 노출시켜 관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성미를 강조하였고, Romantic Lady II 의 이미지는 넓은 플레이어를 주어 여성스럽고 분위기 있는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수공예적인 장식 요소를 위해 장미꽃을 모티브로 장식하였고, 크리스탈, 비즈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은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으며, 현재에도 무한한 영감과 다양한 조형미를 창출하게 하여 계속되는 재창조 작업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 전해정(1991), “Vionnet작품의 구성원리와 기법에 대한 연구”, 복식, 17.
- 김희균(2000), “바이어스 드레이핑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비오네의 재단방법은 Betty Kirke(1991)의 “Madeleine Vionnet”라는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 3) 본 연구자가 특히 비오네의 디자인을 1930년대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1929년부터 바이어스 재단을 시작하여 1930년대 가장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 4) 조규화 외(2004), “패션미학”, 수학사, p.199.
- 5) David Bond(1992), “Glamour in Fashion”, London : Guinness Publishing, p.20.
- 6) 김희균(2000), p.16.
- 7) 조규화 외(2004), pp.205-206.
- 8) Betty Kirke(1991), “Madeleine Vionnet”, San Francisco : Chronicle Books, p.32.
- 9) 앞글, p.46.
- 10) 전해정(1991), 복식 17, pp.215-216.
- 11) 김희균(2000), pp.26-27.
- 12) Betty Kirke(1991), pp.51-58.
- 13) 앞글, p.72.
- 14) 앞글, p.87.
- 15) Betty Kirke(1991), p.89.
- 16) 앞글, p.84.
- 17) 앞글, p.102.
- 18) 고데(godet):스커트나 인버티드의 스커트 등의 플리츠나 플레이어를 넣어 동작을 편하게 하거나 유동적인 드레이프가 지도록 있거나 끼워 넣는 삼각형이나 사다리형의 천 조각을 말한다. 조규화 외(2004), p.206.
- 19) 앞글, p.203.
- 20) 앞글, p.378.
- 21) 앞글, p.380.
- 22) 앞글, p.203.
- 23) 이미숙(1998),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4.

- 24) Vogue, 2, 1954, p.84.  
25) 이미숙(1998), p.75.  
26) Richard Martin(1987),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p.71.  
27) Milbank, C.R., Couture(1985),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 Stewart, Tabori & Chang, p.199.

- 28) Richard Martin(1987), p.139.  
29) 트롱프 뵤이유(trompe-l'oeil)는 불어로 속임수,  
실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조규화(1995), *"복식사전"*, 서울 : 경춘사, p.588.  
30) 조규화 외(2004), pp.203-207.

---

(2006년 8월 14일 접수, 2006년 12월 8일 채택)